

웰빙(well-being)족

물질적 가치보다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통해 행복을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웰빙이란 행복, 안녕, 복지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선호하며, 운동도 단지 육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양까지도 추구하므로, 요가나 단학등을 즐긴다. 또한 스파나 아로마테라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옷차림은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기능적인 패션으로 갖추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상 편안하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나노 기술(nano technology)

나노미터 정도로 아주 작은 구조체를 만들어 응용하는 초미세기술을 말한다. 나노(nano)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이며 고대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nanos)에서 유래했다. 1나노미터(nm)면 10억분의 1m로 머리카락 굵기의 8만~10만분의 1 정도이다. 1959년, 양자역학 연구공로로 노벨물리학상(1965년)을 수상했던 미국의 리처드 파인만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됐다. 당시 실현이 불가능해 보였던 나노의 세계는 혈관을 타고 다니며 치료 할수 있는 초미세의료용 로봇, 항균기능이 있는 은을 나노 수준으로 입자화해 코팅한유아용품, 화장품, 등 의료, 환경, 전자, 정보통신, 기계,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응용되고 있으며 미래의 혁신적인 첨단 기술이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편재(遍在)하는'의 뜻을 가진말로 물이나 공기처럼 도처에 널려있다는 의미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부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 제록스사의 연구원 마크 와이즈가 1988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차세대 IT산업의 혁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재해 있는 주변의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화함으로써 PC, 냉장고, 자동차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집 밖에서 휴대폰으로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홈오토메이션은 초기단계의 유비쿼터스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냉장고는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을 체크하여 곧바로 새상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속옷에 내장된 전자센서는 맥박, 혈압등을 확인, 이상유무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 개인의 모든 전자기기가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사생활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